

# 칠레, 싱크홀 주변 지형 추가 붕괴 가능성 제기

칠레 U.S. News, RTE, Reuters 2022/08/29



- 칠레 정부가 얼마 전 발생한 대규모 싱크홀 인근 지역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음.
  - 얼마 전 칠레 북부 코피아포(Copiapó)시의 광산 마을 티에라 아마리야(Tierra Amarilla)에서 발생한 초대형 싱크홀을 조사 중인 칠레 정부가 싱크홀의 크기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.
  - 칠레 정부는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싱크홀 주변으로 접근 금지 지역을 설정한다고 밝혔다.
  - 캐나다계 광업 기업 룬딩마이닝(Lundin Mining)사가 운영 중인 광산에서 나타난 싱크홀은 초기 발생 이후 지름이 확대되었고, 깊이도 200m에 달해 파리 개선문이 잠길 정도에 이르렀음.
- 싱크홀의 크기가 커지면서 해당 싱크홀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아졌음.
  - 칠레 정부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아직까지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음.
  - 그러나 초기 25m 정도였던 지름이 지금은 두 배 가까이 커졌으며, 연쇄적으로 지형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음. 그러자, 칠레 정부는 싱크홀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음.
  - 칠레 정부는 싱크홀 조사를 위해 특별 위험 대책 조사반을 편성하여 티에라 아마리야로 파견했음.
- 초기 조사 결과는 나왔지만, 칠레 정부가 싱크홀에 대해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.
  - 싱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선 칠레 정부는 얼마 전 과도한 채굴 행위가 싱크홀을 야기했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  - 하지만 이러한 칠레 정부의 초기 조사 결과에 대해, 일각에서는 싱크홀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며,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얹혀 싱크홀이 생길 수 있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음.
  - 또한, 추가 조사를 통해 싱크홀이 지금보다 더 많은 환경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도 더욱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음.